

이-하마스, 1단계 가자휴전 합의...“72시간내 인질석방”

트럼프 “아랍, 미국 등에 매우 위대한날...이軍은 합의된 線까지 철수”

네타나후 “국가적 승리, 인질 데려올것”... 하마스 “합의 이행 보장돼야”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가자지구내에서의 ‘이스라엘군의 1단계 철수선’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측의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협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peacemakers)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네타나후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 소식에 대해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은 “역사적인 성취”라고 규정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우리 인질들의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외교적 성공이자 국가적, 도덕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며 “인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1단계에 합의가 발표되자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인질 광장에서 시민들이 축하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들을 풀어주는 이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네타나후 총리는 또한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에 게도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이스라엘 현지시간으로 9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하마스와의 1단계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합의 이행 72시간 내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천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합의된 내용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 통신은 하마스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예상되는 휴전협정 서명 72시간내에 생존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현재 약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등 외신은 생존 인질들이 11일이나 12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포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인질들이 아마도 13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의 마지드 알 안사리 외무부 대변인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며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전쟁 종식,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벨화학상 ‘다공성 침단소재 개발’ 3인...日, 올해 2관왕

새 분자구조 ‘금속-유기 골격체’

“헤르미온느 가방에 비견되는 잠재력”

지구온난화 대응 비롯 인류 난제

해결 단초 마련한 공로 평가

올해 노벨화학상은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MOF)라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든 과학자 3인방에게 돌아갔다.

일본은 이를 전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수상한 데 이어 화학상도 거머쥐며 올해 노벨상 2관왕에 올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기타가와 스스무(74)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88)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M. 야기(60)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MOF는 금속 이온을 유기 분자로 연결해 만든 골격 구조로, 내부에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통해 다른 분자들이 드나들거나 흡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MOF를 ‘해리포터’ 시리즈 속 주인공 헤르미온느의 가방에 비유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겉보기에는 작지만 내부 공간이 무한에 가까워 온갖 크고 중요한 물질들을 숨기거나 보관할 수 있는 헤르미온느의 가방처럼 MOF 역시 다공성 덕분에 겉보기와 달리 엄청나게 넓은 내부 표면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통해 MOF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사막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공기 중 수분 채취, 수소 연료의 고밀도 저장 등 인류의 주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하이너 링케 노벨화학위원회 위원장은 “금속-유기 골격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기능을 지닌 맞춤형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예전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마련해 줬다”고 설명했다.

올로프 랑스트룀 노벨화학위원회 위원도 “그런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마치 해리 포터에 나



오는 헤르미온느의 핸드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우 작은 부피에 엄청난 양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롭슨이 1999년 구리 양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다이아몬드와 비슷하지만 그 속에 빈 공간이 매우 많은 MOF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구조는 불안정했고, 이로 인해 쉽게 붕괴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기타가와와 롭슨은 MOF 구조 안으로 기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MOF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야기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MOF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인도서 폭우로 산사태...버스 휩쓸려 최소 15명 사망

인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8일(현지시간) AFP·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 빌라스푸르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산비탈 도로를 달리던 버스 1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남성 9명, 여성 4명, 어린이 2명 등 1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주 정부가 발표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 조 당국은 부상한 어린이 3명을 구 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약 30-3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 조 당국은 굴착기 등을 동원해 토사 등을 치우고 나머지 실종 승객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산사태는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진 끝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히마찰프라데시주 빌라스푸르에서 산사태로 인한 버스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매우 비극적”이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

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총리지명” 임시국회 21일께 검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할 임시국회가 이달 하순에나 열린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간 연립 구성 합의가 늦어져 정부 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애초 예정한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중도 보수인 공명당은 지난 4일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자민당의 새 수장으로 당선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배척 등 3가지 문제점을 지목하고서 연립 정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15일 소집을 단념했다”며 “금주 중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하면 17일 소집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20일 이후로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